

정읍시 ‘디지털 농업혁신’ 이끈다

농기센터,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전국 5대 거점기관 선정
토양 검정·액비 분석·미생물 공급 등 실시간 분석 결과 이용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ASTIS, 애스티스)의 전국 5대 거점기관 중 하나로 선정됐다. 디지털 기반의 농업기술 보급과 스마트농업 실현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 정읍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ASTIS는 농촌진흥청이 구축한 온라인 농업기술 플랫폼으로, 농업인이 토양검정, 액비분석, 미생물공급, 농산물안전성분석 등 과학영농시설을 이용할 때 회원가입을 통해 실시간 분석결과

와 서비스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작물 생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해충, 생리장애 등 애로사항을 플랫폼에 올리면 농업기술센터가 이를 확인하고 신속한 해결 방안을 제공한다. 거점기관은 ▲경기도농업기술원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충남 부여군농업기술센터 ▲전남 함평군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선정됐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거점기관으로서 농촌진흥청과의 협력 아래, 정밀 농업정보 수집·분석·활

용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농업기술 대응 체계를 한층 정교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농업인의 문제를 보다 빠르게 파악하고 맞춤형 기술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열린 ASTIS 데이터 연계활용 경진대회에서 ‘기관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데이터 활용 능력과 서비스 혁신 분야에서 이미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용관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ASTIS 거점기관 선정은 정읍시가 디지털농업 시대를 선도하는 큰 전환점”이라며 “정확한 데이터 기반 기술 지원과 농업인 중심의 문제해결 서비스를 강화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스마트농업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건립 ‘순항’

올 1월 착공...부지·기반시설 공사
내년 5월 완공...자격시험·교육 등

고창군 드론산업의 중추적 거점으로 도약할 ‘고창(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건립공사가 순항하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 1월 착공 이후 현재 부지 조성과 기반시설 공사가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고창(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는 총사업비 337억원이 투입되며, 총 면적 8만9560㎡ 규모로 조성된다. 드론 자격시험, 교육, 비행시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비롯해, 활주로와 실기시험장 4면이 함께 조성되며, 2026년 5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센터 완공 후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항공안전기술원이 운영·관리를 맡게 되며, 연간 1000여 명의 교육생과 약 1만5000여 명의 자격시험 응시 인원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향후 드론 관련 산업의 확장성과 연계할 경우, 고창군은 드



고창(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조감도.

론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군은 ‘고창(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협의회(위원장 김진열)’를 구성해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요 사업 결정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호남권)드론 통합지원센터가 고창군의 드론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원과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현재 추진 중인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포함한 사업 전반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군, 공익 직불금 ‘감액 ZERO’ 도전

폐기물 관리 등 홍보·캠페인

고창군이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 및 감액 최소화를 위해 ‘전북형 공익직불 감액ZERO 캠페인’을 전개했다. 고창군은 지난 21일 해리면 라성리에서 박정환 4-H연합회 회장 및 회원, 농업기술센터, 해리면 사무소, 농업정책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자 및 조사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4-H 연합회의 공동 육수수 재배 활동과 연계해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농업인들의 공익직불제 인식 제고를 위해 준수사항이 담긴 홍보 부채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마을주민과 생활 폐기물을 관리하는 공동체 활동, 농업·농촌 공익 증진 교육 이수,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5개 분야의 17개의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

며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박정환 4-H연합회장은 “농업인 스스로가 공익적 가치 실천의 주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4-H회원들이 앞장서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처리 등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진 고창군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농업인들의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직불금 감액 없이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업인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공익직불제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남원시, 진입 거점 북남원로 가로수 식재

철쭉·홍가시 나무 식재...생육 돕기 위한 토양 치환 작업도



남원시가 주요 진입로인 북남원로 일원의 도심 경관 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가로수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남원시 도로. <남원시 제공>

남원시가 주요 진입거점 도로인 북남원로 일원의 도심 경관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위해 가로수 수종 갱신과 토양치환, 철쭉 재식재를 포함한 가로수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남원경찰서에서 북남원IC 구간 중앙분리대에 홍가시 나무 식재를 통해 남원 방문객들에게 색채감 있는 도심녹지 첫인상을 남기기 위해 추진된다. 기존의 식재된 가로수인 느티나무 대부분은 생육상태가 불량해 고사된 가지가 다량 발생했다. 이로 인해 주요 진입거점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기존의 느티나무 교체를 추진한다. 또 홍가시 나무 식재를 통해 봄부터 가을까지 푸르고 붉게 물든 잎으로 남원시 가로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홍가시 나무의 건강한 생육을 돕기 위해 토양치환 작업을 병행한다. 도로 개설 당시 설치된 경계석 기초 콘크리트 및 토양 다짐이 수목에 생육 불량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토양을 개량함으로써 가로수가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 참대위 자원봉사회, 내장산 환경 정화



시니어클럽 참대위 자원봉사회(회장 허흥진)가 지난 23일 내장산 우화정에서 국립공원 내장산 정화활동을 펼쳤다. <사진> 참대위 자원봉사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국립공원 내장사, 내장산CC, (사)샘골다데, (주)카길, 진우회, 정읍새마을금고, 아이투엘건설, 동북아교류협의회, 정읍사랑행복나눔추진위원회, 정읍시사회복지협의회, 정읍시니어클럽 등 회원들이 참여했다. 이날 정화 활동에서는 참여단체별 소개와 인사

가 오고 갔으며, 내장산 관리 사무소의 환경정화 요령에 따라 진행됐다. 김희선 아이투엘건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호남의 금강이자 정읍의 자랑인 내장산을 알리기 위해선 환경정화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읍사랑행복나눔추진위원회 등 회원들로 구성된 시니어클럽 참대위 자원봉사회는 매년 내장산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격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